

성탄 1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 설교: 최용준 바우로 신부 보혈조력: 정요셉 지휘 / 선창: 박어거스틴 반주: 당그레고리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산본교회

개회예식

†입당성가 166장 다 함 께
†정심(淨心)기도 6쪽 집 전 자
†죄의고백 6쪽 다 함 께
†영광송 93쪽(B곡) 다 함 께

말씀의 전례

†본 기 도 집 전 자
주 하느님, 인간을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며,
죄에 빠진 인간을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주시나
이다. 비오니, 성자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소서.

1독서 이사 63:7-9 말 은 이
성 시 148편 다 함 께



1 알렐루야! 하늘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 그 높은 데서 찬양하여라.

2 해와 달아 찬양하고

○ 반짝이는 별들아, 모두 찬양하여라.

3 주님의 명령으로 생겨났으니,

○ 그의 이름 찬양하여라.

4 세상 임금들과 모든 추장들!도

○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도

5 총각 처녀 할 것 없이

○ 늙은이 어린이 모두 함-께

6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분 홀로 한없이 높으시고

○ 땅 하늘 위에 그 위엄 떨치신-다.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 |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아- |멘

2독서 히브 2:10-18 말 은 이

†복음환호송 집 전 자

†복음서 마태 2:13-23 집 전 자

설교 바우로 신부

니케아신경 16쪽 다 함 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말 은 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22쪽 다 함 께

†봉헌성가 148장 다 함 께

성찬기도 23쪽 1 양 식

거룩하시다 101쪽(B곡) 다 함 께

주의기도 28쪽 다 함 께

성체나눔 29쪽 다 함 께

하느님의 어린양 ... 104쪽(B곡) 다 함 께

성체성가 153장 성 가 대

†영성체후기도 31쪽 다 함 께

전능하신 하느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묘
히 탄생하심으로 인간의 옛 생활을 새롭게 만드셨
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성체성사의 은혜를 받아 항
상 새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소식 신 자 회 장

파송예식

†축복기도 32쪽 집 전 자

†파송성가 149장 다 함 께

(†는 일어섬)

	이번 주일(12월 28일)	다음 주일(1월 4일)
1독서	백남진	이은가
2독서	조성산	이숙영
대 도	류한신	김준우
다음주일 전례독서	이사 60:1-6 시편 72 에페 3:1-12 마태 2:1-12	
성 가	174 284 377 173	
복 사	최하현 장태현	보혈조력 정스테반
다음주간 교회청소	정국진 이숙영 정연창 박순호	

(1997-2025 / 교회설립 28주년)



성공회 산본교회

St. Clare's Anglican Church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1, 청진빌딩 7층 ☎ 031-397-0443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

2025년 12월 28일 성탄 1주일 · 가해 · 백새

제29-52호

성탄의 빛 - 고통 속의 희망



성탄절을 맞이하며 교회는 기쁨과 감격으로 아기 하느님을 만나 기억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립니다. 그러나 성탄은 단지 따 성탄 이후 처음 맞는 이 주일, 우리는 피난길의 예 뜻한 장식과 즐거운 노래로만 머물 수 없는, 매우 수님 가족과 함께 걸으며 묵상합니다. 성탄의 경배 깊은 사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의 는 단지 기쁨의 노래로 끝나지 않고, 세상의 고통 순종과 믿음을 통해 아기 예수님을 가장 연약한 모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따라 걷는 여정으로 이어져 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야 합니다. 하느님은 울음 속에 갇힌 생명을 외면 하지만 그 평화의 탄생이 곧바로 어둠과 폭력의 현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그 고통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헤로데의 두 살 이하 사내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아이 학살 소식은,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 앞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의 빛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 이 됩니다. 성탄의 빛이 고통과 어둠 한가운데 있 수님 가족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로 피난을 는 우리의 삶을 비추어, 하느님이 여전히 우리와 떠납니다. 이집트는 한때 하느님의 백성이 해방의 함께하심을 믿는 은총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구장 김장환(엘리아) 주교 / 관할사제 최용준(바우로) 신부

신자회장 최용옥(어거스틴) / 사제회장 김운권(베네딕트) / 원로회장 한명숙(율리야나)

봉헌 생활의 영성

“우리 삶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알아가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봉헌은 우리를 사랑 하는 딸과 아들로 불러주신 하느님께 언제나 ‘예’하고 응답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느님과 이웃에게 되돌려 드리는 신앙의 행동입니다.” - 헨리 나우웬

우리 삶은 여행입니다. **삶이라는 여행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불러주시는 하느님께 “예”하고 응답하여 걷습니다.** 삶은 사랑을 향한 여행입니다. 초대하고 환대하며 같이 걷는 여행입니다. 평화를 향하고 널리 베푸는 여행입니다.

우리 생명은 숨쉬기로 이뤄집니다. 탄생의 순간 우리는 숨을 들이쉬고, 종내에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우리는 생명의 숨을 받고 생명의 숨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선물로 받은 것을 다시 내어주는 행동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예”하고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널리 베풀고 보살피는 행동을 부모님과 가족, 친구와 교회 식구를 통해서 배웁니다. 세상에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성서와 복음 말씀에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야기로 우리 봉헌 생활을 격려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세리 자캐오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께서 베풀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교회는 봉사와 환대, 그리고 헌금 생활로 우리의 봉헌 생활을 격려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를 보살피는 손길은 고마운 봉헌입니다. 낯선 이를 교회에 초대하고 하느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며 살도록 하는 일은 아름다운 봉헌입니다.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로 베푸신 하느님의 선물을 다시 나누는 일은 값진 봉헌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숨결을 들이쉬고 내어주며 우리 생명의 여행을 계속합니다. **받은 선물을 다시 나누고 베푸는 봉헌은 신앙인이 이웃과 세상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우리 생명의 여행을 “예”하고 받아들였듯이, 하느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널리 베풀라고 하시며 새로운 초대에 “예”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 봉헌 서약은 그 응답의 첫걸음입니다.**

이번 주간 외울 말씀 21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9절)

교회소식

■ 전례와 사목

◆ 성탄절기 전례 안내

전례색 : 백색 / 전례곡 : B곡 / 송가 : 영광송

◆ 거룩한 이름 예수 축일 · 신년 감사성찬례

2026년 1월 1일(목) 오전 9시 30분

신정 추모의향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 공현대축일 (1월 6일에서 옮김)

1월 4일(다음 주일)은 공현대축일로 지킵니다.

■ 알림

◆ 2026년 1월 교회위원회 & 교회위원회 워크숍

1월 4일(다음 주일) 오후 2시, 교회위원회 후에
2026 사목과 선교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 성탄대축일례 세례성사 세례자 축하

12월 25일 성탄대축일에 세례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아들이 된 당현민 그레고리 교우를 축하합니다.

◆ 성탄전야, 성탄대축일 감사

성탄전야 성탄 축하의 밤과 성탄대축일을 은혜롭게
보냈습니다. 기도와 봉사로 성탄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애찬을 준비해 주신 베다니회 어
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 소그룹 모임

오늘(28일) 애찬 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 십일조(월정헌금) 서약서 봉헌

2026년도 십일조(월정헌금) 서약서를 기도 가운데
작성하여 성찬례 ‘봉헌’ 순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8일 주일까지)

◆ 서울교구 성직자 신년하례회

1월 6일(화) 오전 11시 / 프란시스코

◆ 서울교구 어머니연합회 신년하례회

1월 13일(화) 오전 11시 / 서울주교좌성당

■ 교우 소식

◆ 생일 축하합니다

유아운(1월 2일)

지난주일 봉헌 내역

■ 십일조 · 월정헌금

630,000원

권순호/황선숙 김준우/조장은 정국진/이숙영
정선우 정시원 최하현

■ 주일헌금

283,000원

권순호 김승현 류한신 박선희 박종례 박태영
백옥경 서한영 신동홍 유군상 이원주 임혜지
장성환 장재현 장태현 채희영 최순덕 최용욱 황선숙

■ 주일학교

유아운 유아현

2,000원

■ 성탄감사

2,100,000원

권순호/황선숙 김미강 김미소 김미애 무명
김운권/홍양금 류지수/이현승 류한신/이민녀
박종례 신동홍/홍종분 유군상 유아운 유아현
유정훈/김승현 윤희진/최용욱 이견상 이은가
이선자/김동준 이원주/이왕수 이윤식/백옥경
이은경 이진봉/김영란 이하린 이해달 최에스터
정국진/이숙영 정연창/박순호 조성산/이승현
최미혜/이상현 차준섭신부/김승숙 최순덕
최용준신부/백기은

■ 감사헌금

680,000원

김은하 무명 유군상 이동우(합격) 이범희(동행)
이윤식(합격) 이진봉 이하린 조준행신부(은혜)
차준섭신부/김승숙(범사) 허예영

■ 특별헌금

635,000원

백옥경, 최성문(나눔의집)
마구간 헌금(인천나눔 과봉): 권순호/황선숙
김준우/조장은 무명 박종례 백옥경/이윤식
신동홍/홍종분 정국진/이숙영 조성산/이승현
최성문 최순덕 최하현

✧ 기도해 주세요 ✧

◆ 우리교회를 위하여

- 일상에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 환대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 환우 교우를 위하여

권영분 김길자 김승숙 김옥현 김형기 박종례
안병순 임광호 이성중 이연학 유군상 유정환
조준행 신부 정시원 채희영 최숙진 한명숙